

朝鮮朝女人의 쓰기에 關한 研究

A study on the Women's Veil of Yi Dynasty

東國大學校 家政教育學科

專任講師 鄭 光 熙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Instructor; Kwang Hee Chung

<目 次>

I. 緒 言

III. 構成背景

II. 史的考察

IV. 結 言

<Abstract>

While the women of the Korea Dynasty wore hat(笠子) and Mongsu(蒙首) on top of it when going out, the Yi Dynasty, due to more strict Confucian ethics and isolated way of life, had seen the development of the covering clothes, rather veil, for avoiding the opposite sex with diversity and both men and women began wearing PHO(ccat), a Korean topcoat over the head and thus called Changgots, but originally PHO for men was named Changyi a men's outer coat.

Neuwul(羅兀), like Mongsu(蒙首) of Korea Dynasty was a thin black hood worn on top of the Wowlip or a kind of skirt draped over the head and the latter was called Changgots, very similar to Sgaechima, a kind of long hood formally worn by women. Meanwhile, local women wore a long veil with no arm sleeves dubbed Cheunyi(薦衣)

But since western civilization and culture landed on Korea around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he women's social status has been raised to almost the same level with men and the way of life has changed towards openness, in which men and women have almost daily contact with one another, so these days we can hardly find such veil style covering clothes around us.

I. 緒 言

우리나라 女人들이 外出할때 얼굴을 가리기 위하여 紗羅와 같은 얇은 비단으로 만든 길고 폭넓은 首巾으로 머리위에 걸쳐 썼는데 이러한 風習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그 時期는 알 수 없으나 文獻上에 依하면 統一新羅 時代에 비롯하여 高麗 時代에 盛行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朝鮮王朝에 이

르러서 崇儒排佛하는 國策에 依하여 儒敎의 倫理思想과 男尊女卑制度의 바탕에서 女人의 社會的 地位는 完全無視되고 生活樣式自體도 幽閉的이었음으로 外出時에는 蔽面하기 위한 男女內外用服飾이 必然的으로 發達하게 되어 長衣, 쓰게치마, 羅兀, 薦衣등으로 多樣化했던 것이다.

本稿에서 이것을 時代的으로 考察整理하여 그 傳統을 確立하고 體系化하는 同時에 그 變遷發達の 背景이 되는 時代文化와 社會制度의 連關關係를 研

究發表하고자 한다.

II. 史의 考察

三國史記卷三十三, 車服屋舍條에 依하면 第四十二代興德王九年에 下敎한 服飾禁制中에 袷라는 것이 있는데

眞骨女는 罽繡金銀絲, 孔雀尾, 翡翠毛를 禁하고
六頭品女는 罽繡, 錦羅, 金銀泥, 纈纈를 禁하고
五頭品女는 綾絹以下만을 使用하게 하고
四頭品女는 絹以下만을 쓰게 하고
平人女는 着用을 禁한 듯하다.

이 記錄을 보아서 袷는 罽繡錦羅와 같은 高級비단에 金銀絲와 金銀箔으로 繡와 絞樣을 아름답게 놓고 그기에 孔雀尾와 翡翠毛 등으로 華麗하게 裝飾했던 奢侈로운 것임을 알 수 있다.

袷라는 것은 近世女人들이 많이 愛用했던 褙(shaul)과 같은 것으로 길이가 길고 폭이 넓은 엷은 천으로 목뒤에서 양쪽 어깨위로 가슴앞에 걸쳐 늘어뜨린 것이다.

이와 同一한 것을 中國唐代女人圖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唐에서는 이것을 領布 또는 領巾이라 한다. 이것을 新羅에서 踏襲했다는 事實은 三國史記色服新羅條의 다음 記錄을 보아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至眞德在位二年 金春秋入唐請襲唐儀 太宗皇帝詔可之兼賜衣帶 遂還來施行以夷易革」

라하고 또

「文武王在位四年 又革婦人之服 自此已後衣冠同於中國」

卽眞德王二年에 金春秋로 하여 唐으로부터 冠帶를 請賜한 事實이 있으며 文武王四年에는 婦人服飾까지 唐制로 革新했다는 事實등으로 미루어 보아서 領布가 新羅에 傳來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 領布는 美國보스톤 美術館에 所藏하고 있는



〔插圖 1〕 張萱筆搗練圖〈世界美術全集所載〉

張萱의 搗練圖(插圖 1)에 잘 나타나고 있다.

高麗時代에 와서는 蒙首라는 것을 身分高下를 不問하고 女人間에 盛行했다는 事實은 다음과 같은 記錄 등으로 알 수 있다.

徐兢의 宣和奉使高麗圖經卷二十婦人條에

「皂羅蒙首 製以四幅幅長八尺 自項垂下唯露面餘悉委地」

라 하였으니 蒙首는 黑色羅로 만드는데 幅은 四幅이고 길이는 八尺이나 되는 것으로 面目만을 내어 놓고 머리위에 덮어쓰고 아래로 길게 늘어 뜨렸음을 알 수 있다.

卷二十三雜俗女騎條에는

「婦人出入亦給僕馬 蓋亦公卿貴人之妻也 從馭不過三數人 皂羅蒙首餘被馬上復加笠焉 王妃婦人惟紅爲飾 亦無車轡也」

이 記錄에 依하면 身分이 貴한 婦人이 外出할때는 騎馬를 했는데 從僕數三人을 거느리고 服裝은 笠子를 쓴 위에 黑羅蒙首를 덮어썼다. 王妃와 같이 지체높은 婦人은 黑色蒙首가 아니라 紅色蒙首인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習俗은 朝鮮王朝의 羅兀과 恰似한 것이 아닌가 한다. 또 婢妾條에는

「宮府有賸國官有妾民庶之妻雜役之婢服飾相類 以其執事服勤故 蒙首不下垂疊於其頂 擗衣而行」

宮中侍女나 國官의 妾과 庶人의 妻 또는 雜役に 從事하는 賤女들의 服飾은 大概類似한데 일을 할 때는 蒙首를 머리위에 접어 올리고 步行時는 옷을 걷어 친다고 하였으니 이는 朝鮮朝에도 있었던 加尼磨라는 習俗과 同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賤使服條에는

「細民之家特無蒙首之物 蓋其值準白金一斤 力所不及非有禁也」

家財가 貧困한 집 女人은 蒙首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法으로 禁한 것이 아니라 그 값이 白金一斤과 맞먹음으로 힘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라 했다.

이러한 高麗女人의 蒙首制度는 中國唐代에도 있었음은 다음과 같은 記錄을 보아서 알 수 있다. 高麗圖經에

「昔唐武德貞觀之中 宮人騎馬者多著幕羅 而全身蔽障 今觀麗俗蒙首之制 豈幕羅之遺法歟」

또 唐書輿服志에도 同一한 記錄이 있는데

「武德貞觀之時宮人騎馬者多著幕羅 雖發自戎夷而全身障蔽 不欲途路窺知」

以上の 두 記錄에 依하면 蒙首는 唐武德貞觀年間에 宮人이 騎馬外出時 幕羅라는 것으로 全身을 덮어 썼는데 이는 途路를 살펴 보지 않기 위함이고 또 幕羅가 戎夷에서 始作된 것이 傳來한 것이라 하였다.

여기에서 戎夷를 어느 나라를 指摘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大概 다음과 같이 推理할 수 있다.

中世紀頃 歐羅巴와 東北亞細亞에까지 影響을 미쳤던 사라센(saracen)文化가 中國에도 많이 輸入되었는데 일찍부터 페루시아인과 아라비아인이 頻繁히 中國에 來往하면서 交易을 했으며 사라센文化의 中心은 中央亞細亞의 回回民族이라 할 수 있다. 回回人의 信仰인 回回教(이슬람教)는 7世紀頃에 發生하여 아랍人間에 教勢가 擴張하여 今일에 이르고 回回教女人이 外出할 때는 반드시 베일(veil) 또는 코트(coat)같은 것으로 얼굴과 全身을 가리웠는데 이는 嚴格한 教律에 依함이라 한다. 이러한 習俗이 中國에 流傳된 것이라 한다면 戎夷는 西域回回人을 가리킴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高麗女人의 笠帽蒙首는 朝鮮王朝에도 繼承되었는데 太宗實錄卷二十八, 十四年十一月條에

「命婦女垂笠帽禁持扇子 先是婦女笠帽卷其前襟 扇子以障面 至是命垂之擁蔽面」

이는 當時의 婦女들이 外出할때 笠帽의 前(앞차양)을 걷어 올리고 扇子로서 얼굴을 가리기 때문에 扇子를 禁하고 帽襟을 내리어서 얼굴을 가리



〔插圖 2〕 唐代的 幕羅<原田淑人の 唐代的 服飾所>

기 했다는 것이다. 여기에依하면 笠帽만을 쓴 것처럼 되어 있으나 笠子위에 얹은 천으로 덮여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世宗實錄卷三, 元年正月條에

「可憲府啓請令前所造婦女畫金笠子 着小印子以憑檢考上曰兩班婦女所着之笠 於街路中脫取考檢不可 自今若有新造者其笠主及工匠並以制書有違律」

即 司憲府에서 婦女笠子에 金으로 裝飾하는 것을 檢索하여 使用하지 못하게 하자고 啓請하였으나 兩班婦女를 路上에서 笠帽을 脫取調査할 수 없으니 앞으로 畫金笠子를 만들지 못하게 하고 萬若 만들었을 때는 匠人과 笠主를 함께 依法措置하라 했다.

世祖實錄卷八, 三年六月條에는

「舊俗婦人出則乘兜子外施帷帳 使外人莫敢窺 其乘馬者亦是面紗束以襪裙 今人例從 苟簡往往便衣卷面紗 括不爲性 流俗之弊一至於此」

舊俗에 婦人이 外出할 때 笠을 쓰고 그 위에 帷帳을 덮어써워 外人이 보지 못하게 하고 乘馬外出時는 面紗를 하고 襪裙(통넓은 바지 모양의 馬上衣)을 입었는데 오늘날에 있어서도 前例를 따르고 있으나 間或 面紗를 걸어 올리고 襪裙도 입지 않으니 어찌 怪異하지 않은가 하였다. 여기에서 말한 帷帳 또는 面紗라는 것이 羅兀(너울)임이 分明하다.

또 世祖實錄卷三, 二年三月條에

「梁誠之上疎曰一禁服妖 蓋衣裳之制所以別男女貴賤也 非下民之所敢擅便者也 今國中女子喜着長衣若男子然 或以長衣着於衣裳之間成爲三層 轉相慕効舉國皆然 疑此即史文所謂服妖者也」

大司憲 벼슬을 지낸 梁誠之가 上疎하기를 妖邪한 衣服을 一切禁해야 한다. 衣服制度에는 男女貴賤의 區別이 있는데 下民들이 放恣한 것이 아니라 至今 國中女人들이 長衣를 즐겨입어 男子와 같은 모양을 하고 或은 衣裳에 長衣를 입어 三層을 이루었다. 이러한 風習이 流轉模倣하여 온나라가 그

러하니 이것이 史文에서 말한 服妖가 아닌지 疑心스럽다고 하였다.

이 記錄에서 말한 長衣라는 옷은 男子들의 두루막이인데 이것을 女子들이 입었다 하여 服妖라 했으나 元來 우리나라 固有服飾制度에 같은 形態의 두루막이를 男女가 通用했으며 高麗에서도 白紵袍라 하여 男女가 着用했으므로 여기에서 服妖라 한 것은 女人들이 衣裳에 長衣를 입고 或은 뒤집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勿論 이것이 後日에 가서는 女人의 專用物인 장옷(長衣)이 된 것이라 하겠다. 元來 男子들은 長衣를 넓은 소매의 袍衣 밑에 끼입었음은 다음 記錄에 나타나 있다.

英祖實錄卷百二十七, 五十二年三月條 英祖襲衣物目中에서 袍衣만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은 것 등이 있다.

多紅雲文袞龍袍
草綠金紋大緞袴護
玉色貢緞長衣
甫羅貢緞長衣
雲紋柳青大緞中赤莫
藍貢緞中赤莫
紫的鄉織中赤莫
草綠貢緞中赤莫
有紋白紗單衫

등 九稱을 奉進한다 하고 小歛禮의 襲衣中에는

眞紅大緞紗袍
玉色有紋緞背子
藍有紋紗道袍
甫羅有紋緞中赤莫
白絹橫袍草綠有紋紗袴護
草綠有紋緞長衣
草綠有紋鄉織中赤莫
豆綠有紋緞中赤莫
甫羅有紋緞中赤莫
甫羅鄉織長衣
草綠廣織道袍
甫羅有紋緞長衣
藍廣織道袍

甫羅有紋大緞長衣(餘他省略)

大歛時衣櫛中에도

- 多紅雲紋緞袞龍袍
- 草綠雲紋緞袴護
- 甫羅貢緞長衣
- 豆綠貢緞長衣
- 土色貢緞長衣

등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襲衣制度를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은 長衣라는 옷은 袍類衣의 一種으로 王의 常服인 袞龍袍와 朝服인 絳紗袍 밑에 입었으며 또는 便服인 中赤莫(中致莫)과 道袍 밑에 끼입었던 것이다. 그럼으로 長衣는 우리 固有의 窄袖形袍로서 新羅에서는 表衣라 하고 高麗에서는 白紵袍라 했으며 朝鮮王朝에서는 直領이라 불리웠던 오랜 傳統을 지닌 袍衣이다. 이 長衣를 朝鮮朝에 와서 女人들이 外出할때 內外用으로 머리위에 덮어 쓰게 됨으로서 장옷(長衣)이라는 性格으로 變하게 된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녀울(羅兀)에 대한 明文記錄을 보면 世祖實錄卷二十, 六年四月條, 嬪氏嘉禮物日中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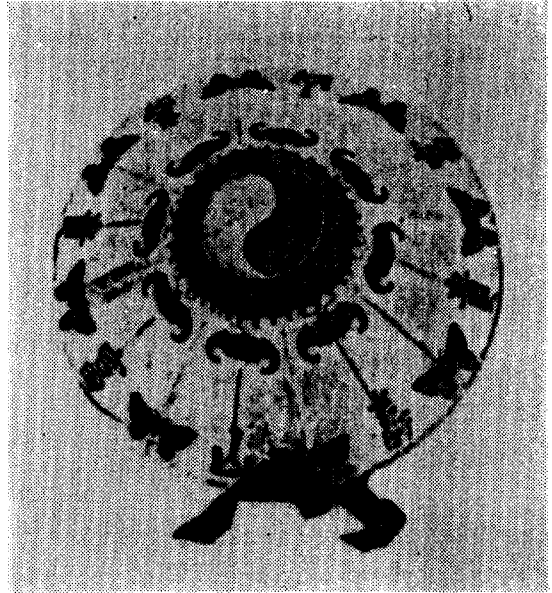
大紅金線段子帶一
笠一
纓子蓋頭前後面紗具類裏(以帛爲之長尺七八寸廣二寸餘殺兩端繞於交結於頂)

이 記錄에 있는 蓋頭가 羅兀을 말합이고 類裏라는 것은 넓이가 二寸이고 길이는 尺七, 八寸인데 이것을 머리위에 둘러맸었다 했으니 俗稱 불끼가 아닌가 한다.

蓋頭に 대하여 曹伸(成宗代文筆家)의 謏聞鎖錄에

「東方土族婦女出外 皆衣皂羅蒙圓笠 四垂尺餘而戴之 所以擁蔽其面 蓋唐幕羅帷帽之遺制 或謂之蓋頭」

이 記錄에서 비로서 笠子形態가 圓形이라 했으며 녀울을 蓋頭라 한다했다.



〔插圖 3〕 圓笠<石宙善, 韓國服飾史所載>

또 文獻備考에

「古者婦人出入無蓋頭奇度創新樣以進後世遵用之」

이 記錄에 依하면 世宗朝에 持平官에 拔擢되어 判中樞벼슬까지 지낸 奇度이가 처음으로 蓋頭를 創製한 것처럼 되어 있다. 녀울(羅兀)이라는 名稱은 英祖代記錄에 보이는데 國婚定例, 中宮殿衣櫛中에

紫的羅袂羅兀壹次(紅眞絲每絹具)

侍女乳母服에도 羅兀靑絹笠을 갖추다 했다. 羅兀과 笠子의 服色이 身分에 따라 다르고 羅兀은 홀과 겹으로 된 것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羅兀의 形態는 얇은 紗羅등으로 위는 좁고 아래는 넓으며 길이는 엉덩이까지 내려오고 面目部分은 網을 붙여 앞을 透視할 수 있는 布袋形의 服飾이라 할 수 있다.

國末에 이르러서 女人들의 蔽面用服飾은 多樣化했는데, 李能和의 朝鮮女俗考에 依하면

「兩班之妻는 晝出則必乘屋輜하고 隨以婢僕하고



〔挿圖 4〕 羅兀(石宙善韓國服飾史所載)

或夜間歩出せむ 則用裙裳掩面與體せ고 以婢僕持燭前導せ고 常民之妻は 則用長衣(或云藏衣)せに 以綠色絹紬爲之せ야 甚長至脛이라 掩頭面全體せに 此屋橋與長衣는 未知始於何時に 都無記錄可徵 而此制通行至于近今矣라 平壤海州等地妓女外出せむ 則持大蘆笠以障面せ고 咸興北青等處 則妓用蓆衣せに 較短於藏衣 而以白洋木爲之せ고 又平壤之一般女出行時에 必而白巾纒首せ야 雖來京城亦如之せに 一見可知其爲平壤人矣라」

兩班의 妻가 晝間에 外出할 때는 반드시 轎子를 타고 夜間外出時는 裙裳으로 얼굴과 몸을 가린다고 한 裙裳은 俗稱쓰게 치마를 말함이고 常民의 妻는 綠色絹紬로 만든 長衣를 덮어쓰는데 정강이까



〔挿圖 5〕 長衣(장옷)



〔挿圖 6〕 蓆衣(차비)



〔挿圖 7〕 大蘆笠(삿갓)

지 내려올 만큼 길었다고 한다. 平壤海州地方의 妓女는 大蘆笠으로 얼굴을 가리웠다 하는데 이것은 俗稱삿갓이라 하는 것이다. 그리고 咸興北靑地方의 妓女는 蓆衣라는 것을 덮어쓰는데 이것은 長衣보다 길이가 짧다고 하였다. 平壤의 一般婦人은 白巾을 머리에 둘러썼다고 했다.

이와 같이 國末에는 여러가지로 多樣하게 發達했으나 身分貴賤에 따라 그 材料와 服色에 差別이 있었고 着用方式에 있어서도 同一하지 않았음은 다음 記錄에서 알 수 있다.

正宗實錄卷二十六, 十二年十月에 頒布한 禁髻節目 中에

「各宮房水腸里醫女針線婢各營邑女妓 則本髮加首之上戴而加里丁 以示區別等威之意內醫女仍用冒緞其他皆用黑三升布」

即 厨房에 從事하는 水腸里와 醫女 針線婢 및 官妓는 本髮만을 하고 머리위에 加里々(가리마)를 덧어서 身分等威를 區別하고 內醫女의 加里々は 黑冒緞으로 하고 其外는 黑三升布로 하라 하였다. 여기에서 말한 加里々は 高麗時代에 身分이 卑賤한 女人이 就役할 때 蒙首를 머리위에 접어올렸다는

것과 同一한 習俗을 말한 것이 아닌가한다. 이에 대하여 李圭景의 五洲衍文長箋散稿卷十五, 東國婦女首飾辨證說에

「妓女着黑褐加尼磨 醫女則着黑緞加尼磨 其狀如册匣戴髻髻上 宮女則戴羅兀蓋頭 古之帷帽面衣之遺制也 亦以靑黑別其職品 黑貴靑賤」

이 記錄에 依하면 妓女는 黑色布의 加尼磨를 하고 醫女는 黑緞加尼磨를 하는데 그 모양이 머리위에 册箱子를 올려놓은 것과 같다 하고 宮女는 羅兀을 쓰는데 黑色과 靑色으로 身分을 區別하고 黑은 貴 하고 靑色은 賤하다 하였다.

以上の 두 記錄을 보아서 가리마(加里々)는 加尼磨와 同一한 習俗을 말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Ⅲ. 構成背景

元來 衣服構成은 어떤 形態를 갖춘 材料를 適切한 方式에 依하여 着裝하여 美的 또는 實用的 機能의 效果狀態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衣服形態는 着用하는 사람의 精神思想과 그기에 自然環境과 時代的社會環境이라는 客觀的條件에 依하여 決定되는 것임으로 民俗服은 그 나라 民族의 精神思



〔挿圖 8〕 加尼磨<申潤福風俗圖>

想과 文化相을 反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으로 女人의 蔽面用服飾이 構成되고 發達하게 된 것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背景이 있었기 때문이다.

新羅時代의 袿와 高麗時代의 蒙首는 中國唐代의 領布와 髻羅風習에서 由來되어 이것이 오래동안 盛行한 것은 既述한 바와 같이 男女內外라는 潛意識바탕에서 女性의 貞淑美와 隱隱美를 追求하는 同時에 裝飾의 效果를 노린 結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朝鮮王朝에 와서 多樣하게 發達하게 되었으니 그 背景은 무엇보다 時代的倫理觀念과 生活樣式에 있다고 할 수 있다. 當時의 女性은 儒敎的倫理觀에 立脚하여 禮記內則등의 敎訓이 絕對的이라 信奉하여 女性들의 社會的地位는 女必從夫니 또는 男專女卑觀에 依하여 男子의 從屬的位置로 格下되고 따라서 生活樣式에 있어서도 完全閉鎖的이었으며 男女間의 交涉에 있어서도 男女七歲不同席이라 할만큼 男女內外法이 嚴格했던 것이다.

內外法에 대하여 朝鮮女俗考에

「我朝鮮婦女內外之法 <我俗謂婦女不見外人曰內外>은 恐는 李朝以來 儒敎思想漸發然後事也니 何以知其然也오 高麗時代에 士大夫之妻無難出入호야 甚至趨謁權門矣 則當時婦女는 猶有自由之權호야 不如李朝之禁閉婦女 如監囚然也로다」

라하고 또

「禮에 婦人은 晝不遊庭이라호니 是의 禁閉婦女호야 長在室內也오 又禮에 婦人은 無故不出中門이라호니 是則設使遊庭이라도 亦不敢越庭外一步地也오 內則에 曰女子出門호면 必擁蔽其面이라호니 是則若不得已出門호면 不欲使人見其面也라 按高麗時 婦女出外에 帶笠帽卷前簷호고 持扇子以障面호니……」

以上 記錄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內外法이라 함은 外人을 보지 않는 것인데 이 風俗은 李朝以來 儒敎思想이 漸次發生한 然後의 일이라 하고 高麗時代婦女는 權門勢道家에도 드나들 수 있을만큼 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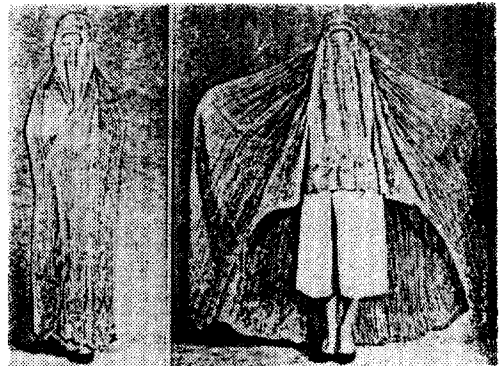
入이 自由로와서 李朝婦女들의 監獄生活과 같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禮法에 婦女는 낮에 뜰에서 놀지 않고 室內에 있어야 하며 中門에서 한거름도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不得已外出하게되면 반드시 얼굴을 가리고 外人을 보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蔽面用服飾은 西歐文化의 影響과 民主主義社會制度로 變遷하는 歷史的時代相에 따라서 男女가 平等化하고 女性이 閉鎖的生活에서 解放됨으로서 國末開化期以後 그 자취를 보지 못하게 되었다.

女子의 蔽面風習은 既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中國은 勿論 中東亞細亞의 아랍諸國과 日本國에까지 넓이 普及되고 오늘날에 있어서도 回回教婦人은 外出할때 반드시 蔽面하는 風俗이 尙存하고 있다. 이락(Iraq)國의 사라센(saracens)女人들이 지금도 아바(abah)라 불



【插圖 9】 사라센女人의 아바<丹野郁, 西洋服裝文化史所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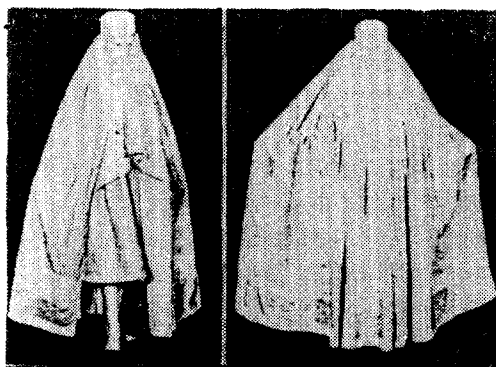


【插圖 10】 아프카니스탄의 차드리<田中千代原色 世界衣服大圖鑑所載>

리우는 옷으로 눈만 내어놓고 머리에서 全身을 덮어쓰고 外出한다고 한 아프카니스탄(Afghanistan)의 카불(Kabul)이라는 地方의 回教徒婦人들은 차드리(chadri)라는 옷으로 눈만 내어놓고 머리에서 全身을 덮어쓰고 外出한다고 한다.

또 西파키스탄(West-pakistan)의 카라치(Karachi) 地方의 回教徒女人은 불케(Burgua)라는 外出服으로 머리와 全身을 덮어 입고 눈만 내어놓고 있다.

그리고 土耳其, 亞刺比亞, 모로코등 地中海東部 地方의 女人은 카프탄(Kaftan)이라 하여 머리위



[插圖 11] 西파키스탄의 불케<田中千代, 原色世界衣服大圖鑑所載>



[插圖 12] 모로코 女人의 카프탄<田中千代世界의 기모노所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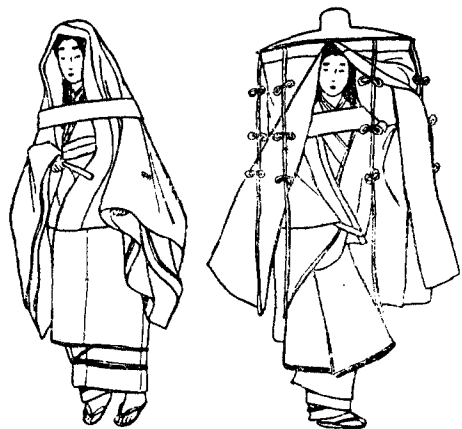
에 쓰고 얼굴에는 흰수건으로 눈만 내어놓고 얼굴을 가린다. 에집트(Egypt)의 回教徒女人은 미라에알리프(Milaych-al-liff)라하여 머리에서 덮어쓰고 얼굴 눈아래에 網같은 것으로 가리운다. 이와 같이 回教徒女人은 外出할때 반드시 蔽面을 하는데 이것은 回教의 經典인 可蘭 二十四章에 依하여 敬神하는 信仰思想과 또 外間男子와는 一切接觸을 禁하고 있는 倫理觀에 起因하는 것이라 한다. (註 1)

日本國에 있어서도 中世紀頃 身分高下없이 女人이 外出할 때 우리나라 薦衣같은 것으로 머리위에 덮어쓰기도 하고 또는 그위에 둥근 笠子를 썼던 것이다. 이것을 쯤보소오소구(壺裝束)이라 하고 또는 가쯔기라 하는데 漢字로 帽衣被衣라 한다.

倭漢三才圖會에 依하면

「按帽衣披衣不帶也 宮女至庶人婦女出外被單衣於頭其長等身而不顯面貌也 以綵絹或布染色紋無定 不禮服故入貴家中門脫去之」

即 가쯔기(帽衣)는 帶를 맺지 않으며 宮女에서 庶民에 이르기까지 外出할때 單衣를 덮어 입는데 길이는 몸길이와 같으며 面目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 입는다. 帽衣는 彩色絹織이나 或은 布를 染色하고 紋樣을 놓기도 하는데 一定한 格式이 없다. 이 옷은 禮服이 아니기 때문에 貴家の 中門에 들



[插圖 13] 일본의 가쯔기<丹野郁, 服飾事典所載>

註 1. : 丹野郁, 西洋服飾文化史, 光生館, 面.

어가면 벗어버린다고 한다.

이러한 習俗이 明治維新以前까지 오래동안 繼續되었는데 이 가즈기는 縫製法에 있어서 우리나라 처녀와 비슷하다(註 2)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나라 女人의 內外用服飾의 영향임이 分明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IV. 結 言

- (1) 中國唐代的 領布를 踏襲한 新羅의 袂는 單純히 裝飾的性格으로 奢侈化했던 것이나 高麗의 蒙首는 中國의 羃羅帷帽와 함께 回回教婦人의 蔽面用服飾영향으로 外出할 때는 笠子위에 덮어쓰고 蔽面用服飾으로 使用하게 되었으며
- (2) 朝鮮王朝에 와서는 儒敎의 倫理觀이 徹底해지고 生活樣式이 完全閉鎖化함으로서 內外用服飾이 多樣的으로 發達함으로서 두루마기를 덮어쓰기도 하여 男子들로부터 服妖라하여 非難을 받기도 하였으나 이 習俗은 오래동안 계속되고 장옷(長衣)이 男女內外用의 女人專用物로 變遷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參 考 文 獻

- 三國史記, 金種權譯, 先進文化社, 1969.
 宣和奉使高麗圖經, 今西龍校正, 近澤書店
 朝鮮王朝實錄, 國史編纂委員會, 1958, 影印本
 諷聞鎖錄, 曹伸
 增補文獻備考
 國婚定例
 五洲衍文長箋散稿, 李圭景
 朝鮮女俗考, 李能和
 韓國服飾史, 石宙善 寶晉齋
 韓國服飾史研究, 柳喜卿, 梨大出版社, 1975
 世界美術全集
 西洋服飾文化史, 丹野郁, 光生館
 服飾事典, 丹野郁
 原色世界衣服大圖鑑, 田中千代外 1名, 保育社
 世界の 기모노, 田中千代, 保育社
 倭漢三才圖會, 寺島良安編纂, 大城刊行會
 中世紀韓國과 日本服飾의 構造, 孫敬子

註 2 : 孫敬子, 「中世韓國과 日本服飾의 構造」, 韓國服飾學會發表論文,